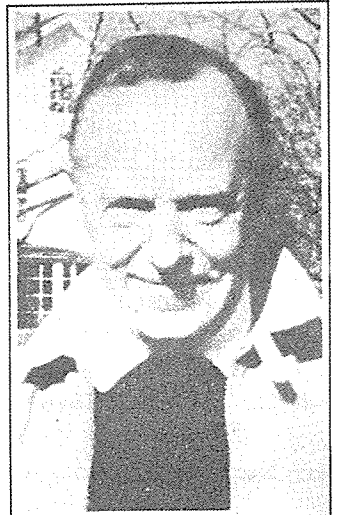


現代建築의 起源



Peter Blake

한 저명한 建築家이며 建築비평가는 建築의 결정적인원리들은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Frank Lloyd Wright 이 세 大家에 의해 규정 지어졌다고 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영웅주의 시대는 지났다. 현 세대의 건축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설계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이다.

Peter Blake는 10년동안 건축분야에서 미국잡지계의 선두권을 가지고 있었던 Architectural Forum의 editor였으며 지금은 Forum과 통합이 된 Architecture Plus의 editor이다. 그는 실지로 건축을 하는 建築家이며, 한때는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박물관에서 건축과 산업디자인의 총지휘자였다. 그의 저서 "Master Builders"는 건축의 현대적 동향에 관한 대표저서중 하나로 널리 애호를 받아오고 있다.

(編輯部)

建 築歷史中 어느 時期도 19世紀에 있었던 만큼 많은 급진적인 變化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人口의 急激한 膨脹壓力속에서 人間努力의 모든 分野에서 새로운 開發이 進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로 建築分野만큼 굉장한 것은 어느 分野에도 없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만 했고 또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일해야만 했기 때문에 建築業者들은 垂直的인 建築을 알아야만 했다. 科學技術은 두가지 중요한 tool를 공급해 주었다. 一方面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벽을 세우지 않고도 고층까지 올릴수 있는 鐵骨造 建築, 그리고 기계에 리베터이다. 더욱 더 많은 商品들이 大規模의 作業過程으로 大量生産되기 때문에 建築業者들은 연속적인 支間으로 대단히 넓은 공간을 덮을 지붕 만드는 方法을 배워야 했었고 科學技術은 鐵筋과 유리로 된 큰 홀, 鐵筋콘크리트 궁륭이라는 문제에서 해답을 다시 만들어 내야만 했었다. 대중사회의 技能을 円滑히 하기

위해서는 輸送手段과 交通手段은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建築業者는 큰 교량, 육교, 대철도, 운하, 항구등을 건설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었다.

現在 우리 일상 생활에 일부가 되어 있는 빌딩 形態의 대부분은 1850年以前에 存在하지 않은 것들이다. 現代式工場, 現代式 高層建物, 쇼핑센터, 現代式 學校, 現代式 病院 이 모든 것들은 19세기 중엽 전까지는 거의 없었던 完全히 새로운 發明品들이다. 建築家들이 새로운 形態의 빌딩을 처음으로 開發할 때에는 그들은 새로운 건물에 알맞는 스타일을 發見하느라고 무척 고심하게 된다. 19세기는 절충주의 時期였다. 모든 훌륭한 建物(建築家들이 생각하기에)은 中世的 낭만주의나 古典的 르네상스 式의 전례 스타일을 따라야만 했다.

새로운 어휘

중세나 르네상스 時代에 高層建物에 對한 前例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철공장과 鐵路격납고의 前例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몇 建築家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建物は 純粹한 建築이라기 보다는 技術領域에 속한다고 아주 단순히 決定해 버림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했다. 다른 建築家들은 절충주의 양식을 새로운 建築形態에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이 새로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이 問題들 속에서 그들의 창작活動에 큰 도전을 發見했던 建築家는 극소수였다. 이러한 극소수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어떤 다른 시대의 빌딩들과도 비할 바 없는 훌륭한 創作品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세대 동안에 이러한 소수의 개척자들은 빌딩형태의 새로운 어휘를 전적으로 만들어냈으며 또 이러한 각각의 빌딩형태에 특징적인 자체의 외관을 부여했다.

이러한 初期의 開拓者들은 建築歷史의 한 部分을 차지한다.

시카고 建築家인 Louis Sullivan은 거의 혼자서 高層建物形態를 建築에 導入했다. 1851년 런던 수정궁을 세

운 풍치적인 도시계획 디자이너 Joseph Paxton과 그의 전후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 등지에 철강과 유리로 된 유명한 建築物을 創作한 몇 사람들이 있다. 드디어 金屬, 유리, 돌과 관련하여 純粹한 構造와 形態의 特性을 強調하는 理論家와 熟練家가 나왔으며 그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現代建築의 基礎를 決定하여 주었다.

아직도 時代思潮,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建築家들의 비존과 엔지니어의 活動없이 는 또 세기의 전환점에 있었던 새로운 機構로 그들이 다루어야 할 것을 本能的으로 알았던 6명의 偉大한 建築家들의 出現없이 는 現代建築은 단순히 實用的인 解決策以上の 發展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책 "Master Builders"에서 나는 이 3소그룹을 고찰하기 위해 선택했다. Le Corbusier로 더 잘 알려진 스위스 태생이며 후에 불란서 시민이 된 Charles-Edouard Jeanneret, 독일 Rhine 지방 태생이며 후에 미국 시민이 된 Ludwig Mies van der Rohe, 웨일즈 계통의 미국인 Frank Lloyd Wright이다. 단지 이들 세 사람만이 현대 건축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現代建築의 어떤 領域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功獻을 한 사람들이 있다. 1920年代에 獨逸의 Bauhaus學校를 總指揮했고 後에 하바드大學校 建築大學을 이끌 어왔던 Walter Gropius는 建築教育, 빌딩의 産業化, 社會的인 問題分析 分野에 現代的, 理論的인 근거를 수립하는 데는 이들 세 大家들보다 확실히 더 많은 공헌을 했다. Eric Mendelson, Alvar Aalto, Richard Neutra,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낸 이 세 사람들 보다 實質的인 性質上의 많은 解決을 해냈다. 이 大家들이 때때로 대단히 원시적인 실험을 하고 때때론 굉장히 환상적으로 논의했던 새로운 建築技術의 可能性을 이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Robert Maillart, Eugene Freyssinet, Pier Luigi Nervi 같은 엔지니어들도 있었다.

詩的인 Visions

Le Corbusier, Mies, Wright는 그들이 예술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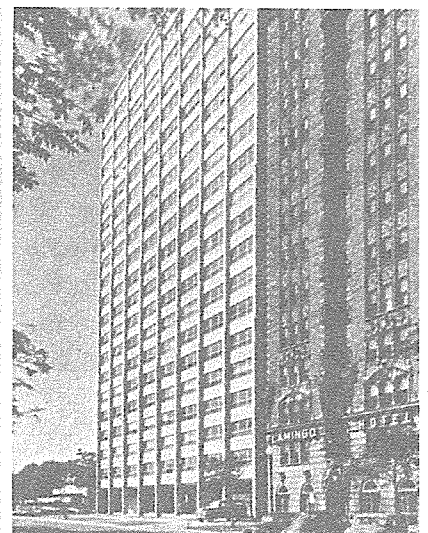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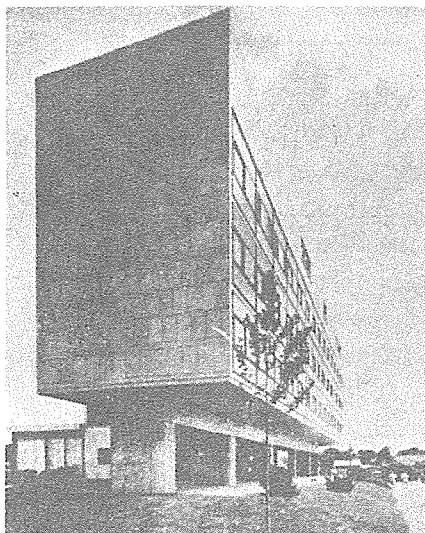
더욱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당대의 어떤 인물보다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들 세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의 詩的인 vision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詩的인 vision에다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평범한 한계점에 방해를 받곤하는 이론적인 사람들보다 좀더 진보적이었고 대담하였다. Frank Lloyd Wright의 초기의 평지붕중 많은 것이 새였으며, 아마 Chartres 도 새였을 것이다. Le Corbusier의 많은 콘크리트 작품이 금이 갔다. Parthenon 신전도 그랬다. Mies van der Rohe의 건물도 항상 완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Hadrian의 villa도 완전치 못했다. 중요한 건물들은 몇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생명은 그 빌딩이 完成됨으로서 始作되는데 그 빌딩의 成功, 失敗는 그 빌딩이 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두번째 생명은 모든 사람이 예산, 안락도, 계획면에 있어 그 建物의 수행여부를 잊었을 때 즉 한 世帶나 두 세대후에 시작된다. 그때에는 그것은 單純히 하나의 作品으로 좋다, 나쁘다, 평범하다는 등의 평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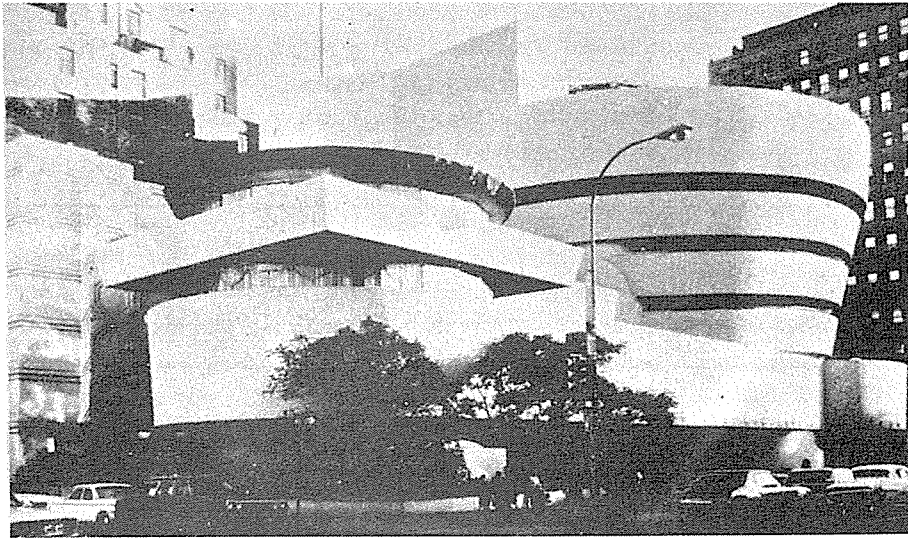
Le Corbusier, Mies, Wright에 의해 設計되고 建設된 빌딩의 대부분은 아직도 첫번째 生命의 일을 完遂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建物들이 얼마나 비싸며, 얼마나 機能을 잘 發揮하는지, 그것들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지, 즉 지붕이 새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세 사람을 選擇하여 이들을 그 시대의 代表的인 建築家로 부르는 것은 다소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하지만 一生 동안일지라도 한 藝術家의 偉大함을 側定할 수 있는 하나의 基準이 있다. 즉 그가 자기 時代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影響을 주었는가, 또 그의 時代에 얼마나 눈에 띄는 業績을 남겨 놓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세 사람의 作品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워진 어떠한 現代的인 빌딩도 그 方法을 찾지 못했을 것 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Manhattan에 있는 Leve House는 어떠한가? 그 토대들은 Le Corbusier에 의해 되어졌고 유리벽은 Mies에 의해 만들어졌다.

左 Le Courbusier: 파리, 대학도시의 Swiss Pavillion

右 Mies van der Rohe: 시카고 Promontory Apartments





Frank Lloyd Wright
뉴욕시의 Guggenheim 박물관

U. N 본부는? 최초의 計劃案을 그가 직접 말지는 않았지만 Le Corbusier 없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Detroit 근처에 General Motors Technical Center는 어떠한가? 分明히 Mies Van der Rohe의 노작이다. 곡선의 shell 형태 구조로 올라가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분명히 Frank Lloyd Wright의 유연성과 연속성의 概念의 새로운 解釋이었다. 즉 流動의 功果와 流動的 構造의 展開이었다. 불쑥 나온 지붕과 많은 面積이 유리로 된 單層 집 이것은 역시 Wright 작품의 부산물이다.

Le Corbusier, Mies, Wright는 대단히 다른 特性과 文化的 根原속에서 西部世界의 主要 傳統을 表現하고 있다. Le Corbusier는 지중해의 古典傳統의 繼承者이다. Mies는 고딕전통의 詩的건축을 참고하기를 좋아하며 Wright는 永遠한 無政府主義者이며 절대적인 自由擁護者로 美國革命精神의 繼承者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表現하는 個人的인 特性과 그들의 作品에 表現하는 그들의 傳統과 思想은 建築以上の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建築은 單純히 좀더 나은 世界에 대한 그들의 思想을 表現하는 언어에 不過하다. 세 사람은 또한 20世紀의 政治的 文化에 관련되었었다. 하지만 이런 問題들은 이 세 建築家들의 作品活動을 活氣차게 하는 큰 vision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것은 못되었다. 藝術의 歷史는 藝術家에 依해 만들어지지, 壓力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Le Corbusier의 Ronchamp 교회, Mies의 Barcelona Pavilion, 또는 Wright의 Taliesin West을 창작한 것은 경제적, 사회적, 科學技術的인 어떤 壓力도 없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重要한 빌딩에 依해 表現되어지는 個人的인 創造的인 活動없이는 現代建築은 存在하지 못했을 것이다.

建築의 未來像

建築의 未來는 個人的 業績에 依해, 뿐만 아니라 가장 創

造的인 藝術家까지도 履行해야 할 어떠한 사실에 의해 表現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科學技術, 政治的 狀況, 人口統計學, 都市와 郊外 開發像과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첫 문제는 科學技術인데 스트레이트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빌딩은 그것이 有用하고 經濟的이며 함께 容易하게 섞이기 때문에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Mies에 의해 이루어진 장방형 鐵骨構造— 그러나 조각적 表現에 關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한성을 줄지도 모른다—는 앞으로 대단히 어려해 동안 빌딩의 대부분의 형태를 지배함이 틀림없다.

이 구형의 鐵骨造는 새로운 패턴을 形成할 새로운 재료로 싸여질 것이다. 예를 들면 유리제품에 대한 전념은 때때로 우스운 것까지도 테두리한다. 오늘날 몇몇 建築家들은 3~4층의 막으로 싸는 建物을 실지로 세우고있다. 안은 모두 유리이고 부차적인 막들은 열, 빛, 남의 눈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계획된 다양하고 복잡한 고안품들이다. 참으로 유리 벽이 쓰여지고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부수되는 부차적인 재료들이 대단히 많아서 그것의 총 두께는 Jericho 지방의 벽 두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유리로 된 빌딩은 아마 오랫동안 存在할 것이다. 그러나 技術科學이 유리사용의 좀더 만족할 만한 方法을 發見했으면 좋겠다.

國民과 都市

다아올 數年동안의 建築像을 지배할 두번째 問題는 人口統計學과 다루어야만 한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도시들 周圍의 郊外로의 變힘은 수평적인 계획과 建築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典型的인 미국의 교회지역은 1에이커당 4~5가구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Wright의 이상적인 Broadcaro 시를 위한 계획안은 도시보다는 Village의 인구밀도에 가까운 에이커당 1가구가 좋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뉴욕등지에서의 새로운 高層아파트

계획안에서는 인구밀도도 에이커당 400~500 가구이며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어떤것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교외로의 뻗힘은 모든 美国都市에 完연하여 이제는 광활하고 깨끗한 교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都市居住者들의 極少数뿐이다. 그리고 都市의 조밀함은 이제 극심해져서 대도시내에서의 生活은 거의 파멸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問題와 經驗에서 나온 有一한 理論的인 解決은 지난 40년동안 Le-Corbusier와 그의 영향을 받은 人們에 의해 주장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높은 건물과 공원 지역의 분포가 상상대로만 된다면 에이커당 400가구의 그 自体로는 非人間的인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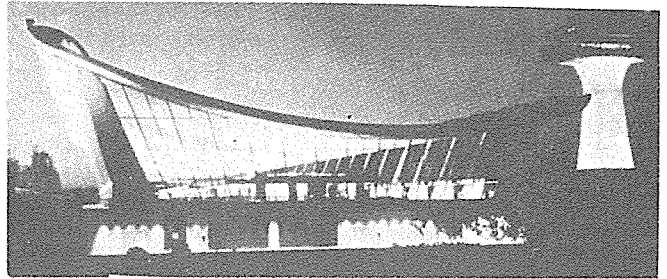
Frank Lloyd Wright가 主張한 都市分散은 아직도 空地가 많은 美国에서는 效果의 일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可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可能性이 희박하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確實할 수 없는 두가지 條件을 前題로 한다. 첫째 人們들이 都市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두 번째는 事業과 産業이 小規模 單位로 분할했을때도 效果의 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의 어느 하나도 過去나 現在 經驗의 根據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分散政策이 圓滑하여지면 초고속 輸送이 위성도시들과 다른 地域과를 往來하는데 모든 困難을 克服할 것이며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 있을뿐만 아니라 큰 都市도 강렬히 자극하는 어떤 動搖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人們들이 큰 都市를 좋아하는 사실을 무시해도 될 것이다.

“Background”와 “Foreground” 빌딩

이 모든 것은 未來는 Mies와 Corbusier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未來의 理想的인 都市들은 公園情境을 해치며 솟는 장방형의 유리, 강철 콘크리트 슬라브의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Wright의 진지한 努力이 아무 것도 아닌 結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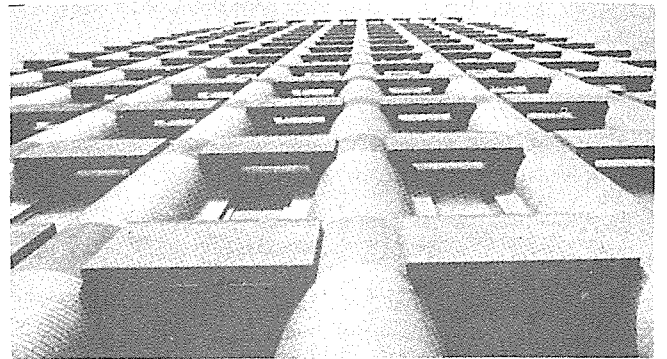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Yale 大學 建築課長 Raul Rudolph가 “Background”와 “Foreground” 빌딩의 創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안한 問題들이다.

多細胞的인 構造의 빌딩 대부분—오피스빌딩, 工場, 아파트, 病院—은 비교적 별 特徵이 없고 간단한 Background빌딩들인 것 같다. 이러한 큰 建物들은 空間形態를 만든다. 즉 都市의 形態를 만든다. 그 빌딩들은 큰 무대에 중심적이 되는 背景幕같은 것이다. 이러한 Background 빌딩에 依해 만들어진 空間속에 여러 종류의 많은 建物들이 있을 것이다. 政府機關, 또는 宗教的, 公共團體를 象徵하는 建物들, 슈퍼마켓과 集會場所같은 연속적인 支間을 必要로 하는 建物들, 娛樂과 教育을 위한 建物등 이러한 “Foreground” 빌딩들은 Mies의 것과는 대단히 다른 構造—좀 더 彫刻的인 表現을 하고 있다. Le Corbusier는 이것을 대단히 잘 소화시켜 불란서 St,



Master Builders의 스타일을 개성화한 대표적 건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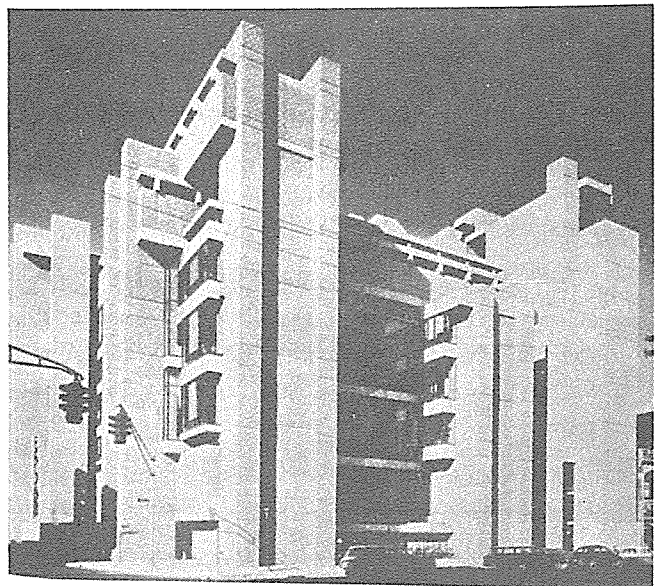
- (上) Washington부근에 있는 Eero Saarinen이 설계한 Dulles공항.
- (下) Connecticut 주 New Haven에 세워진 Philip Johnson이 설계한 Kline Biologv Tower



Die를 India Chandigarh를 위한 상상적 都市計劃案에서는 어떤 상징적 建物들은 核心的 배경막과 잘 대조시켜 큰 형태의 조각으로서 다루었다.

Eero Saarinen이 “형태에 대한 탐구”라고 부르듯이 現在 研究中에 있다. 이러한 탐구에서 Wright의 곡선작품은 굉장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Le Corbusier 유연성으로의 침투도 그러했다.

이들 두사람은 이 새로운 형태는 어떤 훈련, 특히 보아나오는 技術의 訓練을 알때만 意味 있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아직도 美国에서는 이러한 技術訓練을 위험할 정도로 무시해 왔다. 象徵主義 라는 이름아래 建築家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技術原理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技能



Yale 대학에 세워진 Paul Rudolph가 설계한 건축과 미술관

的要求까지도 여기면서 큰 建築的 彫刻品을 만들어 내왔다. 저명한 이태리 엔지니어 Pier Luigi Nervi는 새로운 것과 技術에 대한 변태적 관심이 있을것 같다고 지적해 냈다. 두가지 점만으로 새로운 彫刻의 지붕모양은 建築에 있어 재빠른 손재주를 초래하는 建築의 모순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開發精神이다. 그들은 세기말에서 지금까지 근본적 건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전개해 오고 있다.

새로움에 대한 요구

실지문제중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이다. 특히 美國에서 더 심하다. 6개월정도에서 새로와지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建築家들은 뒤떨어졌다고 간주된다. 참으로 모든 藝術家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壓迫속에 있게 된다. 消費者에게 구매케 하고 工場을 원활케 運營하려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는 소비 상품 지역에서는 이러한 압력에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전에는 藝術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 過去의 偉대한 作品中の 몇몇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예를 들면 Florence에 있는 Ghilberti가 만든 문들—이러한 作品들은 한 時代의 作品을 代表하며, 個人的인 創作性和 時代思潮사이의 基本的인 相互作用으로 하나의 內的確信을 끌어냈기 때문에 藝術의 方向을 決定的으로 전환시켰다. 象徵主義와 可塑性이라는 이름하에 오늘날 제시된 성급하고 화려한 형태들은 建築이라기 보다는 廣告나 販賣政策領域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Wright와 Le Corbusier에 의해 사용된 기술의 근본적인 原理들은 좀더 잘 理解되며 새로운 世帶의 建築家들에 의해 세워진 “Foreground” 빌딩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유한 建築의 根本的인 原理로 돌아간다. 한편 한 문제가 더 남아 있다. 긴급히 요구되는 “background” 빌딩을 設計하는데 있어 충분히 만족될 수 있는가를 建築家가 어떻게 發見하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 10년동안의 現代의 움직임은 영웅이 있었다.

그 영웅들의 方法이 깊이 스며들었다. 영웅時代는 終末이 가까워오고 있다. 앞으로의 建築의 진정한 영웅은 都市 그 自体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建築은 都市의 要求에 따라야 할 것이다.

過去에서 거의 모든 세기동안 그랬던 것과 같이 都市가 建築의 주인이 될때다. 몇십년 동안은 都市는 個人主義的인 무책임한 자기 선진가들의 障礙物이 되어 왔었다. 이러한 광란을 자유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들의 무례함을 방비없는 것들에게 부과한 사람들의 면허권의 單純한 表現이었다.

美術은 진공(공허, 공백) 속에서도 존재한다—한 고독한 藝術家의 創作品은 그에 의해 느껴지고 理解되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빌딩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비록 작을지라도 社會의 断面에 부딪치게 된다. 建築은 대

단히 強力한 生活條件이며 강한 설복자여서 그것은 어떤 것—질서에 대한 혼돈에 대한 힘, 또는 대단히 지루한 無關心에 대한 壓力이 항상 있을 것이다.

調和된 文明社會를 만들기 위해서—이것이 建築의 目的이다—建築은 다시 秩序를 위한 힘이 되어야만 한다. 몇몇 비평가들은 建築의 秩序에 자유가 있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 왔다. 事實上 秩序없이, 法則없이는 自由도 있을 수 없다. 現代建築의 많은 이야기를 썼던 3人들은 建築의 法則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이 建築을 무시할 수 없는 物理的, 道德的 法則을 만들어 놓았다. 세 사람中 가장 自由主義者였던 Wright 까지도 르네상스 時代에 가장 規律를 嚴格히 지키는 建築家만큼 建築原理를 明白하게 적용했다.

새로운 통합

現代建築의 發展에 있어 다음 면은 Wright, Mies, Le Corbusier에 의해 展開된 概念들을 綜合해야 될 것 같다. 이 세 大家들은 그들이 한 때 나타냈던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根源的인 建築의 Le Corbusier의 概念은 Wright의 낭만적 建築概念보다 좀 더 지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文化的인 것과 기질상의 차이는 現在에 대단히 밀접하게 나타난다. 물론 Mies와 Le Corbusier사 이 어떤 투쟁도 있을 수 없다.

대부분 綜合함으로서 일해야 할 새 세대의 建築家들은 일하기가 힘들다. 綜合해야 될 대부분은 Mies와 Le Corbusier에 의해 증명된 것 같지만 단지 피상적으로 된 것 뿐이다. 실지로 Wright가 現代建築에 도입한 原理들이 再發見되어지고 再解釋되고 現代化되고 있다. Wright의 Scale에 대한 감각, 섬세한 것을 좋아하는 점, 빛과 공간을 다루는 솜씨(이 두가지의 相互作用)들, 이 모두는 새로이 綜合해야 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히 繼續的인 가소성 建築에 魅力을 느끼고 있다.

Wright는 그가 建築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아는데로 連續性和 가소성이 있는 建物를 실지로 建築하진 않았지만 그는 젊은 엔지니어의 作品속에 그의 꿈을 충족시키고 있다. Wright가 기꺼이 칭찬을 했던 當代의 有一한 建築物들은 스페인 엔지니어 Eduardo Jorroja가 만든 가소성 콘크리트 우산형과 아르헨틴 建築技士 Eduardo Catalano가 만든 쌍곡선의 포물면체이다. 이들 두 사람은 멕시코의 Felix Candela, 이태리의 Pier Luigi Nervi, 독일의 Frie Otto, 등 공동으로 作品을 하였으며 오늘날 더 젊은 世代의 建築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실지로 Wright의 理論을 現代化하고 合理化하고 실지로 만든 것이다.

美國에서는 고 Eero Saarinen이나 아직도 活動하고 있는 Philip Johnson과 Paul Rudolph같은 建築家 들은 Wright의 作品과 Mies와 Le Corbusier의 作品을 綜合

화하고 있다. Saarinen은 Mies를 위해 “Universal spaces”를 세웠지만 그것들은 Wright가 상상한 종류의 가상 구조아래 두었다. Johnson은 아직도 建築의 詩的表現에 苦心을 두지만 그 構造는 Mies의 철강 기둥과는 거리가 먼 점차 流動性的이고 조각적인 면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리고 Rudolph는 실지로 細部的이고 空間組織, 빛의 혼합에 의한 빌딩 스케일을 樹立하는데 가장 關心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Mies를 찬양하면서도 Mies가 싫어하는 풍요함에 목적을 두는 Minoru Yamasaki가 덧붙여야 한다—제 2세대의 중요한 建築家들속에 끼인다. 그들은 혁신가들도 아니다. 새로운 思想의 흐름이 압도적인 후 大革新이라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綜合하는 것 뿐이다. 그들이 Mies, Le Corbusier, Wright로부터 전수받은 세 가지 각각 다른 概念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Foreground”빌딩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자존에 차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background” 건축에 창작에 묶이고 있다.

構造와 機能의 原理

“Foreground” 건축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신기함 그

자체를 위한 신기함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좀 더 널리 알려진 “Foreground” 구조들중 몇 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 경우는 이 새로운 절충주의가 지나갈 것이다. 建築家들의 새 世代는 Le Corbusier와 Wright가 그것들을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 만큼 構造와 機能의 原理를 聯關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젊은 建築家들에겐 어떤 포기도 없음을 보여준다. 結局 Michelangelo는 그가 St. Peter의 dome을 디자인할 때 Florence의 Brunelleschi의 dome을 아주 기꺼이 따랐다.

우리 時代に 새로운 Michelangelo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위에 제시한 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 들였을 거라고 믿는다. 첫째로 새 건축의 基本的 原理는 建築의 原則을 制定한 사람들에 의해 넓게 결정되어지고, 둘째로 個人的인 英雄時代는 지나갔다. 셋째 未來의 英雄은 都市自体이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偉大한 藝術家의 새 世代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原理를 전반적으로 理解함으로써 作品活動을 하고 새 方法으로 解積할 것이다. 建築이나 Disneyland나? 문명과 혼돈의 兩者擇一에 있다. “우리의 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Le Corbusier는 말했다.

韓國建築史大系 全10卷

2. 韓國古建築斷章 上

申榮勳 著

- 各卷 352頁 46倍判
 図版及 図面 1,000余点収録
- 各種 新資料 豊富히 収録
- 新建築 設計, 施工에 應用될 친절한 図解의 収録

各卷 定価 6,000원

〈新刊案内〉 金 洵 建築評論集

우리時代의 거울

1975年 6月 1日 初版 發行
 木口會出版委員會 發行
 定価 1,000원
 연락처 74-4622

「建築批評의 不毛를 안타깝게 여겨오던 우리의 建築街에 새 싹이 돋은 듯 本冊字의 孕胎를 祝賀해 마지 않는다.

韓國建築의 正當한 批評의 發芽를 위해, 健全한 體系確立을 위한 對話의 討論을 기대하면서……

月刊「建築士」